

기상 이변 속 정부의 역할

‘재난 자본주의’ 활개 우려 ...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해야



홍수·폭염 등 기후 재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수해로 무너진 영산강지류 문명천 제방. /장정필 객원기자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프로그램 국장



2020년은 전 세계가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을 운명으로 체험하는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초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고,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초기 신속한 대응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비대면 방식으로 확진자 등을 관리해 공동체 감염을 최소화해왔지만, 8월 15일 법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후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두 번째 대유행을 맞이한 듯 보인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고, 산불까지 일어나 8월 20일 현재 6만 2000명이 대피했다. 산불은 이미 서울 면적의 2.5배가 넘는 숲을 삼키고 계속 타올랐다. 폭염은 주변 공기를 끊임없이 데우고, 점점 더 건조해진 공기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지금은 산불과 합쳐져 '파이어네이도(Fire+Tornado)'를 일컫고 있다. 파이어네이도는 소방관들이 작업을 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산불 진압은 점점 어렵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국민들 심리적으로 멍한 상태
한국도 올 여름 유례없이 오래 이어진 호우와 홍수를 경험했다. 작은 국토가 반으로 갈려 대한민국 한쪽은 끊임없는 호우에 지반 침하와 물폭탄을 겪었고 다른 쪽은 폭염을 경험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1야당은 태양광 설비 건설을 산사태의 원인

으로 지목했고, 4대강 사업을 홍수 피해 최소화와 원동력으로 부각시켰다. 왜 연속된 재난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캐나다의 정신의학자 도널드 이웬 카메론(Donald Ewen Cameron)은 뇌가 심각한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고 백지화되는 상태로 만들면 새로운 이념을 주입해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전에 자신이 반대하던 이념이라도 뇌가 백지화됐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는 유아 뇌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50년대에 자신을 찾은 환자들을 이용해 이런 입증에 나섰다. 뇌를 백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전기충격을 이용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 공산주의자들을 뇌 백지화로 자본주의자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매우 매력적이었고, CIA는 기계이 그의 실험을 지원했다.

그의 실험이 성공했나? 성공했다. 무자비한 전기 충격과 약물을 동원해 사람의 뇌를 유아기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주입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흡사 스티븐 영화같은 그런 상황을 의사가 진행했다는 사실이 실로 끔찍하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저런 비윤리적인 의사에게, 그리고 그의 작업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이들에게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이익집단이 여전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뇌가 백지화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의 연속, 코로나19 팬데믹, 홍수, 태풍, 전쟁, 테러 등을 경험했을 때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멍한 상태가 된다. 이때를 이익집단들은 놓치지 않는다. 바로 이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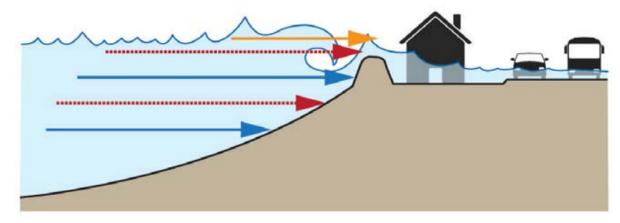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에 폭염·홍수까지
국내외 유례없는 기후재난 상황
혼란 이용 이기적 집단들 꿈들
자신의 이익 취하려고 호시탐탐
정부, 공모자 아닌 해결사 돼서
비상사태 선언하고 대안 내놔야

이 우리에게 충격적 상황을 접하기 전 반대했던 모든 것을 뒤집고 원하는 사상을 이식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이 아님을 제1야당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재난으로 타격을 입은 순간 태양광 얘기를 들고나오는 것은, 호우와 산사태로 재산 피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허우적대고 있을 때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그들의 무의식에 집어넣을 좋은 기회로 봤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잠시나마 병상이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매일 수백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를 보면서 충격에 빠진 이 시기에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도 비슷한 이유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호기가 왔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의 상관관계



한국 기후 변화·전망



2030년 서울 면적 9배 물에 잠기고 이재민 300만 명 발생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태풍 피해가 해마다 발생한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일 높이도 더 높아져 서울 면적의 9배에 이르는 국토가 물에 잠기고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재민이 된다.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이 물에 잠겨 기능을 상실한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자리한 제철소와 화력발전소가 침수되면서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재난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2030년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기후재앙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린피스가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10년 후 한반도에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 대로 증가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연간 1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이 더해졌을 때의 피해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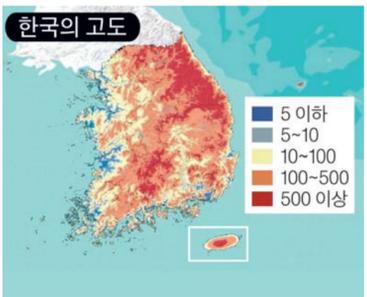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침수 피해는 내륙보다 해안에서, 동해·남해보다 서해안에서 두드러졌다. 서해안 일대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 태풍에 따른 해일 크기 역시 동해보다

서해·남해에서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이 밖에도 지면 경사도, 초목 밀도, 인구 밀도 등 20개 이상의 변수를 데이터에 적용해, 강력한 태풍이 발생했을 때 해수면 상승이 초래하는 영향을 연구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에서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저지대 거주민의 홍수 피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이 되면 특정 지역에서는 열대성 저기압과 해수면 상승이 결합해,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던 폭풍 해일이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로



7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보다 470여 배에 이르는 330만 명이 피해를 보는 재난이라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국가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자본주의'라 부르고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챙기고 집단이거주의에 빠지지 않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재난 상황이다.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우리는 이 재난의 적극적 공모자다. 우리 국민이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집단의 침범을 막으려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기후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기후재난의 공모자가 아닌 적극적 해결사가 되기 위한 정책들, 예컨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같은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 자본주의의 저속함을 물리치고 재난 속 정부의 역할을 떠올릴 때 모범 사례로 남길 바라본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이현숙 서울사무소 및 홍콩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2017-2018년 네덜란드 암스텔담 소재 그린피스 인터네셔널(본사)에서 석유 관련 선임 전략가로도 활동했다. 한국이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와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전환 등 기후위기 분야에서도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의 꿈이다.